

광주시, '글로벌대학 30' 등 지역대학 총력 지원 나선다

대학 업무 관련 부서 팀장급 26명 구성, 역대급 실무 추진단 구성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학 협력사업 행·재정적 지원방안 본격 논의

광주시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존재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교들을 돕기 위해 역대급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지난 2월 지역대학 총장들과 관련 기관 중심으로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교육정책관을 신설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준비단'을 발족했다.

광주시는 특히 최근 현실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팀장급 26명으로 구성된 대학지원 실무 추진단을 출범하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협력사업 개선편안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본격 논의·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지원 실무 추진단은 우선 '글로벌대학 30'의 15개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돼 오는 10월 본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학교의 실행계획서 작성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사업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대학 관계자와 수시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전체 팀

장급이 모여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지원 방안 해결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대학 협력사업으로 22개 부서에서 '산학연 협력 선도 육성사업(LINC 3.0)', '지역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대학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기획' 등 총 5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은 "최근 '글로벌대학 30',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지자체 주도로 변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라 됐다"며 "업무 담당 팀장들과 대학 관계자가 직접 소통을 통해 지역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체불명 수상한 '국제우편물' 현재까지 테러 연관성 없어

대테러센터, 관계기관과 합동 분석 총 2141건 신고...679건 수거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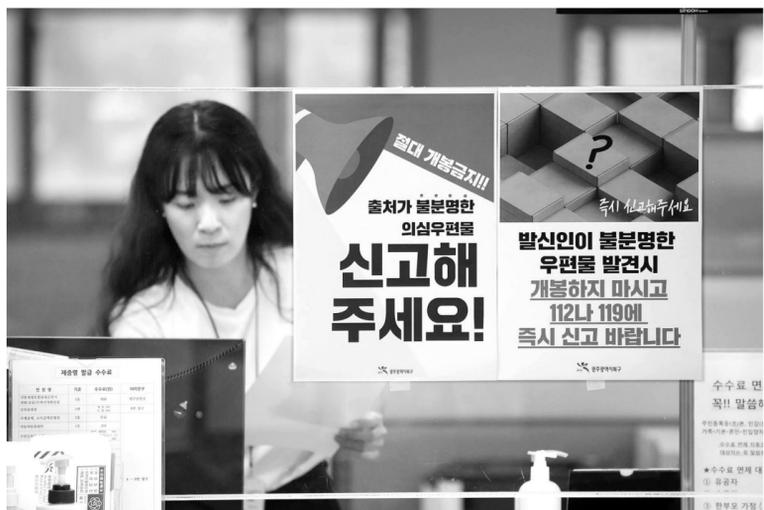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는 24일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과 관련해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테러센터가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관계 기관이 접수한 신고는 총 214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은 1462건이다. 국조실은 지난 20일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최초 신고 접수된 사건과 관련, 소방·경찰 등 초동 출동 기관이 우편물을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1일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심 우편물을 발견하면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는 소방 특수화학구조대, 군 대화생방테러특임대, 보건소 등이 합동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1차 검사를 끝낸 우편물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테러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국조실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4일 광주시 북구청민원여권과에 신고 안 내문이 붙어있다.

은 전했다.

어지러움 및 호흡 불편을 호소했던 복지 시설 직원 3명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이외에도 경찰·소방 등이 정체불명의 우편물 679건(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제외)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화학·생방 관련 위험 물질은 발견

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편물이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8월1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으로, 인도는 지난 1일부터 추가됐다. 계도기간은 이날 말 끝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본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유제관 광주일보 국장 '이달의 편집상' 수상

유제관(사진) 광주일보 편집담당1국장이 '262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이달의 편집상 종합부문 수상작에 유 국장의 '대통령 한마디에...시험에 빠진 수능' (6월19일자 1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쉬은 수능 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불거진 수능 난이도 논란에 빗대어 이 같은 제목으로 편집했다.

'100년 대계'라는 교육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대학수학능력 '시험' 자체가 '평가' 대상으로 전락해 수험생, 학부모, 교육 당국 모두가 시험대에 오른 현



상을 '시험에 빠진 수능'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다.

'이달의 편집상'은 전국 일간신문 52개사 회원 1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무허가 건축물 긴급 안전 점검

28일까지 붕괴 취약 106곳

광주시는 "지속적인 호우로 약해진 지반 및 건축물 붕괴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무허가 건축물(주택) 약 1117곳 중 목구조, 벽돌조, 블록조 등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10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주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침하, 건축물 내외부 구조부재

처짐 및 균열, 석축 및 옹벽, 배수로 등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핀다.

또 전기시설 및 인접 가로수, 토사유실 등 주변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조치 명령 및 주기적으로 예방활동을 발의 계획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관리가 소홀한 무허가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디지털정보도서관 '나도 웹툰작가' 2기 수강생 모집

광주시립디지털정보도서관은 24일 "이날부터 '나도 웹툰작가' 2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립디지털정보도서관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웹툰 관련 전문장비를 구축하고, 실제로 직접 웹툰을 그려볼 수 있는 '웹툰창작체험관'을 조성·제공하며, 카카오톡툰 작가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등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웹툰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 및 청소년 대상, 팝아트

+캐릭터 프로그램과 일반 성인 대상, 도전! 웹툰작가, 도전! 웹툰작가 심화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령과 수준에 맞춰 웹툰의 기초부터 팝아트, 캐릭터, 스토리, 연출 등을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다.

수강 희망자는 디지털정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광주시립통합도서관(citylib.gwangju.kr)을 참고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웹툰 작가의 꿈을 키우는 지역민들에게 웹툰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가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光州日報 지역안내

• 동 권 266-1920 • 동 권 266-1990 • 북권 525-5761
• 신 권 222-9171 • 영 권 571-7558 • 서 권 266-7801
• 용 권 433-1503 • 우 권 433-1503

• 남 권 673-6336 • 동 권 222-9054 • 동 권 225-6001
• 용 권 222-9054 • 용 권 222-8171

• 남 권 673-6336 • 북 권 551-1833 • 북 권 673-6336
• 용 권 675-6035 • 신 권 671-7276

• 경 권 382-5788 • 서 권 372-2352 • 서 권 369-1625
• 온 권 376-7153 • 지 권 376-6511 • 동 권 603-0311
• 화 권 369-1625

광산권 • 온 권 952-1687 • 월 권 959-1920 • 청 권 973-2900
• 화 권 955-0451 • 경 권 344-0444

사찰(금) 안내

- 위 치: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약 1,700평
- 가 액: 9억
- 약사여래불 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상각 1동
- 108 톨탑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정가능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